

여성이 사는 세상, 할 일 하는 여성회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제42회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 총회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5:00 PM
(Chevy Chase Country Club, Wheeling, IL)

5:00 PM 등록

5:30 PM 1부

개회	사회자 (김호정 출판부 차장)
축가	시카고한인여성회합창단 (지휘 표경진, 반주 정혜원) 1. 잊지 못할 사랑, 2. 친구여
환영사	성유나 회장
축사	최은주 시카고한인회장
축사	김정한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
심해옥 장학금 수여	권오화 장학위원장
감사 및 회계 보고	임미라 총무
차기 회장 발표	육원자 공천위원장
감사패 수여 (육원자 이사장)	성유나 회장
이임사	육원자 이사장
취임사	심형란 이사장
제19대 임원진 소개 및 사진 촬영	성유나 회장
라인댄스 공연	여성회 회원부 라인댄스팀 (강사 서명혜) 1. Gucci 2. Hotel California
저녁 식사	
모듬북 공연	여성회 회원부 모듬북팀 (강사 이애덕) 1. 아! 대한민국 2. 추노
축하 공연 (독창)	바리톤 표경진, 피아노 정혜원 1. O Sole Mio (Eduardo di Capua) 2. 우리는 (송창식 작사, 작곡)
클라리넷 연주	Joy Lee 1. Gabriel's Oboe for Clarinet (Ennio Morricone) 2. You Raise Me Up (Rolf Lovland)
싱어롱	다함께 1. 고향의 봄, 2. 시카고 찬가(서울의 찬가)
폐회	

7:00 PM 2부

2020년에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의 일상생활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정착해 이전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려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더불어 치솟는 물가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도 치솟은 기름값, 물가 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인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노령화하면서 예전 같은 활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한인 사회를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성회도 올해 42년이 되었고 초창기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립도 힘들지만, 수성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성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한인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자체적인 재정 확립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큰손으로 후원하는 몇몇 후원자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후원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비로 여성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그렇다고 이사비를 갑자기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사들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들이 갖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의결권 외에 총회와 연말 파티에서 티켓값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실행하려 합니다.

단체도 생물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성회도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을 내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성유나

이임사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작한 임기가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러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축하객 없이 30명도 채 안 되는 마스크를 쓴 임원, 이사들과 취임식을 했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암울한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시작된 임기는 그나마 화상으로 하는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 있어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대면이 여의치 못해 여성회의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사회 체재 정비와 젊은 이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여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약 40여 명의 신입이사 영입과 후원이사제 도입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강화된 이사회는 여성회가 성장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향후의 발전도 기대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는 실제 활동하시는 이사님들의 자긍심과 여성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도가 높아진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인류 사상 최악의 절망적인 코로나 역병과 싸우면서, 주변의 사랑하는 여성회 멤버와 가족들이 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잘 이겨낸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활발해진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코로나 감염확산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분위기이지만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제 임기 첫해는 박순자 회장의 ‘꿈과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성들’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저와 함께 여성회를 이끌어 갔으나, 코로나 사태라는 악조건때문에 회장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한 여성회 40주년 기념행사를 치를 수 없었던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여성이 사는 세상, 할 일 하는 여성회’라는 신입 성유나 회장의 슬로건대로 함께 여성회의 변화를 모색하고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성회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사회를 이끌어 갈 심형란 신입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회장을 역임한 경력과 리더십이 일상의 회복과 맞물려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나아가 여성회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보통 공직을 떠나면서 하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시원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원하지도 않고 더구나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제게는 지난 두 해가 즐거웠고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 비록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성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 공동체의 각종 단체 리더로 활동했으나, 여성회야말로 제 자존심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카고 한인 사회의 가장 모범 단체인 여성회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영원히 남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이사장직을 잘 마칠 수 있게 성원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이사진과 임원, 회원 및 동포사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장 육원자

취임사



시작이란 아름다운 단어

“시작이란 아름다운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2008, 2009년 여성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열정으로 뭉친 여성회 선배님들의 지혜와 도움으로 시작하였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현재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피할 수 없다면 위기를 넘어서 위풍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또 시작이란 아름다운 단어로 ‘당당하게 꿈꾸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성회’라는 새롭고 도전적인 무대를 꿈꿉니다. 이제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장직을 맡으며 주인공이길 포기하고 따뜻한 관객의 눈으로 여성회를 바라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납니다.

“우연인 듯한 인생의 점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게 삶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연결되었다고……”

그래서 현재의 점을 찍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점이 되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이제 여성회에서 만난 인연들, 여성회를 위해 꾸준히 도와주시는 선배님, 이사님, 회장님과 집행부, 각 부서 임원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힘을 합하여 현재의 점을 하나씩 찍어가려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년 동안 여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육원자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봉사로 더욱더 발전하는 여성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신임 이사장 심형란



시카고 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하나로, 미래로! Better Together!

Phone: 773-878-1900 | 1250 Greenwood Rd. #212 Glenview, IL 60025

Email: info@chicagokorea.org



안녕하십니까?

시카고의 한인 이민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연을 가진 동포들의 감동적인 삶과 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한국동포가 가지는 특별한 민족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오늘의 시카고 한인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헌신적인 삶과 열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성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많은 기록들도 보입니다. 아마 여성의 배려와 포용의 섬세한 리더십이 많은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난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19 라는 팬데믹의 시기를 맞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시기가 차마 끝나기도 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강한 인내력과 실천하는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이 사는 세상, 할 일하는 여성회!

정말 여성이 자리를 지키고 제 할일을 해 나갈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여성회 이사장님의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임하시는 육원자 이사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더 큰 일들로 역할을 감당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취임하시는 심형란 신임 이사장님께 진심어린 축하와 함께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여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힘찬 출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5 대 시카고 한인회 회장 최은주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cago

Consul General



시카고 한인여성회 이사장 이·취임식 축사

이 곳 동포사회 안정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시카고 한인 여성회의 이사장 이·취임식에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여성의 권익 증진은 물론 한인들의 현지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 위상을 높이는데 남다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여성회의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육원자 이사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형란 신임 이사장님은 10여년 전 여성회 회장을 이미 역임하신 바 있기에 성유나 회장님과 함께 여성회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한편 여성들과 한인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에도 공헌해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회가 한인 여성들과 우리 동포사회 구성원들이 이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밝은 등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이사장 이·취임식에 다시 한번 축하의 뜻을 전하며, 여성회의 발전과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 김정한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Chicago, Illinois 60611
Tel: (312) 822-9485 Fax: (312) 822-9849

사업 및 활동 보고

(2021.7.1-2022.6.30)

2021년

- 7/22 임원회 at Tuscany 식당
- 7/25 임원 모임 at 육원자 이사장 댁
- 7/26 합창단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연습 방문
- 7/31 평통-한반도 증진선언 지지 포럼 참석 at Hilton Hotel
- 8/7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시카고 지부) 주최 'KOWIN CHICAGO SHOWCASE 2021'에 참석
- 8/25 회원부 라인댄스반 방문
- 8/28 회원부 모듬북반 방문
- 9/4 제1회 시카고 디카시 전시회 방문 at 시카고한인문화회관
- 9/9 가을 정기 이사회 at Chevy Chase Country Club
- 9/17 골든클럽-알함브라 궁전 디너쇼' 단체 관람
- 9/25 Richard Yongjae O'Neill(리처드 용재 오닐) 독주회 참석 (교육부 심현정 부장 주관)
- 9/30 김영석 총영사관저 방문
- 10/7 문화부-김영의 '해설이 있는 추억의 영화음악'
- 10/14 교육부-이명덕 재정 세미나 '돈 걱정없는 나의 노후 생활'
- 10/18 평통 출범식 참석 at Hilton Hotel
- 10/27 여성회 회원부 라인댄스반 방문
- 11/4 한미TV '시카고 한인 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특별 기획 방송 녹화
- 11/20 개업 오픈하우스 참석(서진화 부회장)
- 12/12 여성회 연말파티 at Chevy Chase Country Club
- 12/13 여성회합창단 종강파티 방문
- 12/17 K 라디오 신규사육 오픈하우스 참석
- 12/19 시카고한국무용단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문화부 이애덕 부장)
- 12/30 한인회 주최 단체장 상견례 참석 at Hilton Hotel

2022년

- 1/13 한인회 이취임식 참석 at Hilton Hotel
- 1/20 임원회 온라인 미팅 by Zoom
- 1/23 부동산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at Chevy Chase Country Club
- 3/1 한인회 삼일절 행사 참석 at 제일연합감리교회
- 3/7 여성회합창단 개강파티 방문
- 3/10 임원회 at 장충동식당
- 4/7 봄 정기 이사회 at 문화회관
- 4/9 평통 '여성 리더십 세미나' 참석 at DoubleTree Skokie
- 4/16 보스톤재단 우명순 여사 추모식 참석 at the Galvin Recital Hall at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 4/23 Win TV 그랜드 오픈 참석
- 4/24 임원회 온라인 미팅 by Zoom
- 5/1 여성회합창단 방문
- 5/14 교육부-어린이 날 행사 at Children's Museum, Navy Pier
- 5/15 문화부-어머니 날 행사 at 문화회관
- 6/1 Dr. 백종호(루시 백 이사 부군) 장례식 참석
- 6/2 임원회 온라인 미팅 by Zoom
- 6/26 제42회 여성회 연례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이임 이사장: 육원자, 취임 이사장: 심형란)



1차 정기 임원회

- 2021년 7월 22일 오후 6시, Tuscany(Wheeling, IL)
- 여성회 오리엔테이션(고애선 부장): 여성회 소개 및 임원 역할
- 이사회(9월 9일) 관련 안건 토의

2차 정기 임원회

- 2021년 10월 14일 오후 7시 20분, 한인문화회관 행사장1
- 연말파티(12월 12일) 관련 안건 토의

3차 정기 임원회

-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온라인 미팅(by Zoom)
- 연말 파티 평가
- 여성회 웹사이트: 쉬운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콘텐츠 올릴 수 있도록 하자



4차 정기 임원회

- 2022년 3월 2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식당 별실
- 어머니날 행사를 문화부에서 하기로 함
- 연례총회(6월 26일) 관련 토의 함

임시 임원회

- 2022년 4월 24일 오후 7시, 온라인 미팅(by Zoom)
- 어머니날 행사(5월 15일) 준비 관련 모임

5차 정기 임원회

- 2022년 6월 2일 오후 7시, 온라인 미팅(by Zoom)
- 연례 총회관련 토의 함
- 비품 정리 및 리스트 작성 하기로 함

Annual Meeting | 연례 총회

2021년도 연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6월 24일 목요일, 노스브룩 힐튼호텔에서 2021년도 연례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8대 박순자 회장이 이임하고 19대 성유나 회장이 취임했으며, 이날 심해옥 장학금과 한인서로돕기 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재철 장순진 부부와 이강업 후원이사, 보스톤재단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임기를 마치며 감사패를 수여 받았고, 박회장은 18대 임원 전원에게 감사장과 여성회의 상징인 백조 모양의 크리스탈 브로치를 전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여성회 40주년의 역사와 소개를 담은 기념 영상을 상영하고 전현직 회장과 이사장을 무대 앞으로 모셔 소개하고 여성회를 위해 헌신한 지난 수고에 감사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여성회 합창단의 축하와 회원부 라인댄스팀의 공연, 그리고 하피스트 Nichole Young씨의 감미로운 하프 연주로 장내는 한껏 축하의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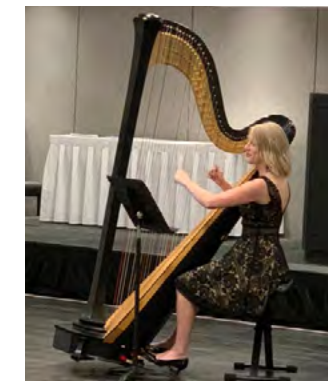
〈전현직 회장 이사장 소개〉



〈심해옥 장학금 수여〉



〈19대 임원진 소개〉



〈하프 연주〉

〈여성회 40주년 기념 영상〉



연말 파티 | End of Year Party

2021년도 연말 파티 '감사의 밤'

지난 12월 12일 일요일, 윌링 소재 Chevy Chase Country Club에서 연말파티를 가졌습니다. 여성회합창단의 'Eres Tu'와 '캐롤 매들리' 연주로 시작되었고, '감사의 밤'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임원 3명(김호정, 고애선, 제인 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2부에서는 제인 전 회원부장의 진행으로 넌센스 퀴즈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로 세계적인 큰 인기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추억의 놀이(딱지치기, 구슬뺏기), 선물추첨 등으로 참석자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회원부의 수요일인댄스팀과 모듬북반에서 공연을 펼쳐 더욱 흥을 돋웠습니다.



이사회 소식 |

실행 이사회

실행 이사회가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Niles에 있는 쌍용식당에서 열렸습니다. 9명의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 및 두 명의 이사임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사회 정관 수정에 관한 안건은 한글과 영문으로 두 개의 수정 및 개정안이 승인이 되고 가을 이사회때 발표, 인준받기로 함
내용은, 정관 제6장 6조 이사회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수정안과 새로이 제8장으로 후원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승인함.
(자세한 내용은 본지 13 페이지 참조)
- 2) 여성회 은행계좌와 통합 정리에 관해 기존의 5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현 회장단을 위해 한미은행에 새 계좌를 열도록 승인했으며, 행사 목적에 따라 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결정.
- 3) 이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신입 이사 신청서 및 이사회비 납부서 서식을 소개함.
- 4) 여성회 행사는 기존과 같이 목요일로 유지하기로 함.

2021년 가을 정기 이사회

가을 정기 이사회가 9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30분에 Chevy Chase Country Club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했고, 육원자 이사장은 "코로나 백신을 맞

고 상황이 많이 진정되어 대면으로 멋진 장소에서 많은 이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전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감사보고, 성유나 회장의 보고에 이어 부서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토의 전에 먼저 인준시 불참했던 심형란 차기 이사장의 인사가 있었고, 2세 정치인 Holly Kim 소개도 있었습니다. 신입 이사로 최선자, 장은주, 박현숙, 김수잔, 김유순, 김동매, 오숙자 등 7명의 이사가 인준받았고, 이사 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8월 14일 실행이사회에서 토의한 안건을 공표하고 회칙위원회에서 개정된 정관을 발표하고 인준받았습니다. (내용은 왼쪽 칼럼의 '실행이사회' 소식란을 참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맛있는 뷔페 저녁식사를 한 후, 육원자 이사장이 진행한 여흥시간에는 라인댄스팀의 멋진 공연이 있었고, 여성회 역사와 정보에 관한 퀴즈로 여성회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임 후 최진숙 합창단원의 지휘로 행사에 참석한 이사와 합창단원 모두 sing-along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도 이사진 명단

- 이사장:** 육원자
- 평생이사:** 이은희
- 실행이사:** 구광자, 권오화, 김성자, 김선희, 김영, 박규영, 박순자, 성유나, 심형란, 최선옥, 심정열,
- 당연직이사:** 고애선, 고명주, 김정아, 김호정, 노진수, 박순열, 박희숙, 서진화, 서미선, 이광자, 이숙현, 이애덕, 이향지, 임미라, 전제인, 정지연, 지현정
- 일반이사:** 강정희, 경정옥, 고희숙, 김군자, 김동매, 김문주, 김미애, 김미경, 김민정, 김선숙, 김정자, 김조숙, 김수잔, 김수현, 김승자, 김운령, 김유순, 김의숙, 김인덕, 김재란, 김혜자, 김희경, 문봉주, 문성임, 박유식, 박현숙, 백루시, 서명혜, 서정애, 손경순, 송선, 오숙자, 원재령, 유근실, 류순화, 유정순, 유정희, 윤금옥, 이선희, 이영희, 이정희, 이케이, 이혜선, 이화식, 이풍자, 장은주, 전수진, 정원숙, 조수잔, 조연미, 조윤정, 조희선, 지영주, 최기화, 최방자, 최선자, 최줄리, 최진숙, 한영숙, 허은영, 허정자, 현조연
- 후원이사:** 이강엽, 육길원

이사회 소식 | Board Meetings

2022 년 봄 정기이사회

봄 정기 이사회가 4월 7일 목요일 문화회관 제1행사장에서 오후 6시30분에 열렸습니다. 육원자 이사장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 2년의 이사장 임기 중 마지막 이사회로 그동안 성원해주 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어 전화의록 낭독, 회계보고, 감사보고 및 각 부서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토의로 공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차기 회장에 고애선 현 홍보부장을 발표하고, 이사들의 인준을 받은 후에 고애선 차기 회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이사로 김조숙, 박유식, 조희선, 전수진, 손경순, 서미선, 최진숙, 고희숙, 김정자 등 9명이 인준을 받고 이사들에게 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성유나 회장이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참석한 이사들은 여성회 로고가 찍힌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육원자 이사장이 진행한 여흥시간에는 박주미 명창의 '사랑가', 장은주 교수의 '즉흥 환상곡' 피아노 연주와 바리톤 이진욱 교수의 '시간에 기대어' 등 두 곡의 열창이 이사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사벨 이 IM Beauty 학교 교장의 'Anti-Aging Skin Care'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참석 이사들 모두 알찬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칙 위원회의 결정 개정안 공고

시카고한인여성회의 회칙을 검토,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회칙 위원회(구광자, 권오화, 박순자, 성유나, 심형란, 최선옥, 육원자)가 2021년 8월 14일 Niles에 있는 쌍용 식당에서 그동안 검토한 By-Laws의 수정, 추가 및 개정사항을 11명이 참석한 실행이사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Article VI. Board of Directors

Section 6.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include:

- 4) All Board members must pay yearly dues as determined by the board.
Failure to pay the required dues for more than two years may result in removal from the board.
- 4) 본회의 이사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이사회비를 2년이상 미납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사회비를 2, 3년 납부하지 않은 채 이사 명단에 남아있어, 이사회에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Article VIII. Fundraising Committee

Section 1. Purpose

This Fundraising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twenty (20) members to raise funds for the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s long-term viability and financial independence.

Section 2. Committee Member Requirement

An individual who shares the vision and purpose of the Association and contributes Five Hundred Dollars (\$500.00) or more per year will be appointed as a member.

Section 3. Terms of Committee Member

An annual contribution of \$500.00 or more is the sole requirement to continue as a member of the Fundraising Committee.

Section 4. Responsibility and Rights

Concurrent with an appointment as a Fundraising Committee member, the appointee must contribute \$500.00 or more. A Fundraising Committee member does not have any responsibility in the Association's operations nor any voting rights. However, the appointee can attend the Association's Annual Meeting and year-end celebration free of charge.

제8장 후원이사

제1조: 목적

본회의 재정자립과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명의 후원이사로 구성된다.

제2조: 자격

본회의 비전과 목적을 같이하며 매년 \$500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이는 본회의 후원이사가 된다.

제3조: 후원이사 임기

매년 후원금으로 본회에 기여하는 한 후원이사가 될 수 있다.

제4조: 후원이사의 의무 및 혜택

후원이사 임명과 동시에 \$500 이상의 금액을 본회의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본회의 모든 업무의 결정에 대한 투표권이나 책임 및 의무는 없다. 다만 본회의 연례 총회와 연말 행사에 후원이사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후원이사제 도입은 앞으로 도약할 여성회의 장기 재정 확립의 한 방법으로 이 조항을 새로 만들어 추가했습니다.

위의 추가 조항으로 개정된 안은 2021년 9월 9일 Chevy Chase Country Club에서 열렸던 가을 정기 이사회에서 공표하고 인준받았음을 공고합니다.

육원자 회칙위원회 위원장

합창부 | Choir

(부장: 김정아, 차장: 박희숙)

2021. 7. 26

개강 (개강 식사: 육원자 이사장 후원)

2021. 9. 9

여성회 가을 이사회에서 연주: '등대지기', 'Sing'

2021. 12. 12

여성회 연말파티에서 연주: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Eres Tu'

2021. 12. 13

7주간의 겨울방학 시작 (종강 식사: 권오화, 연속자 후원)

2022. 2. 7

개강 (7일, 14일은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 연습)

2022. 2. 21

대면 연습 시작
(Vaccine card 지참),
매달 셋째 주에 단원 생일을 축하하기로 함



2022. 3. 1

한인회 주최 삼일절 기념식에서 연주: '비목', '삼일절 노래'

2022. 3. 19

합창단 35주년 행사 준비 미팅: 권오화, 연속자의 식사 후원과 함께 표경진, 정혜원, 김호정, 김정아, 김조숙 참석

2022. 5. 2

합창 세미나 개최 (강사: 표경진 지휘자)
- 식사 후원: 김정아, 박희숙

2022. 6. 26

여성회 연례총회에서 연주: '잊지 못할 사랑', '친구여'
표경진 지휘자가 축가 연주: '오 솔레미오', '우리는'

2022. 6. 27

방학 시작

2022. 8. 2

개강 예정

2021년 7월에 35명이었던 단원이 2022년 6월에 49명으로 늘어서 현재 지휘자와 반주자를 합쳐서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성회 합창단은 1989년도 창단 이래 친목과 자기개발을 하며 사회 참여와 봉사로 행복과 보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휘: 표경진 | 반주: 정혜원
단장: 권오화 | 부단장: 연속자, 김호정
고문: 구광자, 박순자

연습 시간과 장소: 매주 월, 오후 7시, 문화회관 행사장
문의: (262) 337-3613 | joycekim92@gmail.com



<2021.6.24 연례 총회 축가>



<2021.9.9 가을 정기 이사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합창>



<2021.12.12 연말 파티>



<2022.3.1 삼일절 기념식>



<2022.5.2 합창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표경진 지휘자>



<2022.5.2 합창 세미나를 경청하며 훈련 받는 단원들>

시카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오랫동안 재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이명덕 박사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강사: 이명덕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일시: 2021. 10. 14 목요일 6 PM
장소: 시카고한인문화회관 행사장 #1
9930 Capital Dr., Wheeling, IL 60090
예약: 교육부 (847) 707-5354, (484) 995-1555

* 수강인원과 개인과 회사 준비 권유로 예약 필수
* 무료 강연이며, 간단한 식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kawac.org@gmail.com www.kawac.org

재정세미나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문화회관에서 이명덕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돈 걱정 없는 나의 노후 생활'이란 주제로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명덕 재정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회 임원들과 함께>

Education | 교육부

(부장: 심현정, 차장: 고명주)

어린이날 행사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국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Korean Children's Day" 행사가 시카고한인문화회관 주관으로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운타운 네이비 피어 소재 시카고어린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여성회 교육부에서는 이 행사의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과 참석한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날의 정신을 시카고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 행사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딱지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한국의 놀이문화 배우기와 한국 문화 아이템 색칠하기, 붓글씨 체험, 한복 입어보기, K-Pop Dance 배우기, 재미 한인 작가들의 동화책 보기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내용들을 경험했습니다.



<딱지를 접는 어린이>



<한국 문화 소재 색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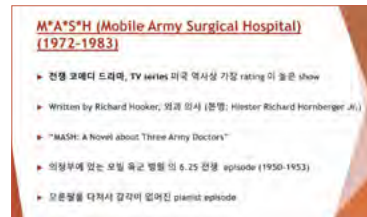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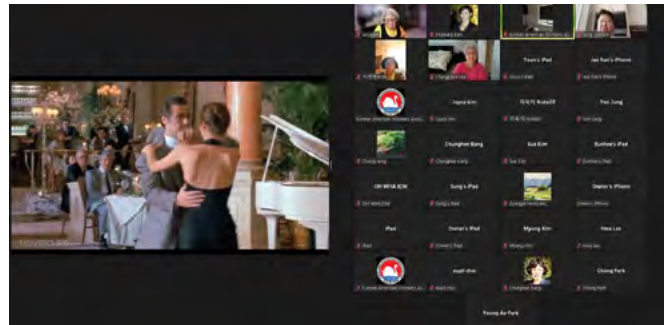
<K-pop Dance 배우기와 행사장 전경>

문화부 | Culture

(부장: 이애덕, 차장: 이숙현)

추억의 영화 음악

지난 10월 7일 문화부 주관으로 개최된 <해설이 있는 추억의 영화 음악>은 지난봄 강연에 이은 제2편으로 김영 전 이사장의 해설로 진행됐습니다. The Pianist, Green Book, Ocean's Eleven, Schindler's List 등 추억에 남을 만한 영화에 포함된 클래식 음악과 영화 해설을 통하여 옛 향수에 젖어들며 감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는 약 7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코로나로 단절되고 메말랐던 우리의 감성에 단비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흥, 민요 배우기>



어머니날 축하 행사

5월 15일 4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어머니! 당신을 초대합니다>는 80여 명의 어머니가 참가하였고, 나의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로 살아온 본인 자신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챙겨야했던 어머니들에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노래와 시, 꽃 증정, 개인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시간은 감동을 자아냈으며,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함께 보며 세월의 흐름을 돌아보는 추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포토 타임과 재미난 민요 배우기와 게임을 즐기며, 베스트 드레서 진선미를 뽑는 등 어머니들을 위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속으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



<베스트 드레서 진선미: 권오화, 김정아, 그레이스 리>

Membership | 회원부

(부장: 제인 전, 차장: 서미선)



<즐거움과 건강을 한번에! 수요 라인댄스>



<한국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토요일 모듬북>



<연말파티 여흥시간>

회원부는 팬데믹 가운데에도 '수요 라인댄스'와 '토요 한국문화반'을 운영하며 지난 12월 연말 파티에서의 공연으로 행사에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2부 순서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소개된 우리의 전통 놀이인 딱지와 구슬치기 등으로 파티의 흥을 돋웠습니다.

또, 올해 5월 어머니날 행사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맡아 어머니로 사는 삶에 대한 노고와 한 여인으로서의 인생을 돌아보는 즐겁고도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1년 5월에 개강하여 오랜 연습 시간을 거쳐 연말 파티에서 첫선을 보인 한국문화반의 '모듬북 클래스' 공연은 청중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고, 공연 후 회원 가입 증가로 이어졌으며, 회원부 두 클래스 모두 이사님들의 높은 참여로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설된 토요 한국문화반의 '모듬북 클래스'는 새로운 회원 모집은 물론, 심화한 순서도 함께 배우기 위해 명칭을 '토요 모듬북'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수요 라인댄스'도 기존 회원은 물론, 새로운 회원과 왕초보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선생님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원이었던 차장직에 서미선 이사님이 봉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 라인댄스'와 '토요 모듬북'반의 회원 증가를 위해 여러 이사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라인댄스 (강사 서명혜): 매주 수 2:30 PM 문화회관 #9820
 토요 모듬북 (강사 이애덕): 매주 토 11:30 AM 문화회관 #9820
 문의: (847)990-0554 | DreamHomeWithJane@gmail.com
 (773)988-8822 | UniversalTravel02@yahoo.com

골든클럽 | Golden Club

(부장: 이광자 / 차장: 유근실)

지난 9월 7일 금요일, 시카고한인여성회 골든클럽 회원들은 그동안 Covid-19으로 인한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Alhambra Palace Restaurant Dinner Show를 관람하고, 오랜만에 즐겁고 멋진 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견학은 Chicago Angela Line Dance 회원 25명과 여성회 회원 26명이 의기투합하여 진행한 행사로, 대형 코치 버스를 동원해 주차 및 교통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win-win 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각 팀의 대표들은 앞으로도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함께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골든클럽은 55세 이상 회원 및 그들 배우자의 모임으로 시대에 맞춰가는 교양강좌, 취미생활, 여행, 견학, 문화체험을 통해 인생의 황금기가 즐겁고 보람찬 삶이 되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문의 전화: 부장 이광자 (847) 877-6803



저녁식사와 쇼를 보러갑니다
 날짜: 9/17 (금)
 시간: 6:00Pm 출발
 교통편: 코치버스 대절 (56인승)
 1인당 교통비 \$25.00 + 식사비
 식사는 각자 주문 합니다

장소: Alhambra Palace
 주소: 1240 W. Randolph St.
 Chicago IL 60607
 확인후에 바로 신청바랍니다.
 인원: 선착순 25명 제한



Publishing / Public Relations | 출판부 / 홍보부

(출판부 차장: 김호정 / 홍보부 부장: 고애선)

출판부

출판부는 매년 6월에 '연례 보고서'와 매년 12월에 '여성회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여성회의 활동과 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북 등 각종 책자와 포스터, 광고같은 인쇄물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부와 협조하여 여성회 광고 제작을 돕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임원 명단과 행사 계획, 여성회 정관 등이 포함된 임원용 소책자를 제작합니다.



홍보부

홍보부는 여성회의 모든 행사를 각 언론 매체 및 페이스북과 웹사이트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 광고와 홍보용 방송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연례총회 및 장학생 모집 광고를 언론에 내보냈으며, 여성회의 모든 행사들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출판부와 연계하여 사진과 기사 등 출판물과 웹사이트에 사용될 자료 수집을 돕습니다.

2021년 6월에는 특히 여성회 창립 41주년 기념 연례 보고서를 제작하여, 여성회 41년을 정리한 간략한 역사와 활동 보고를 한글과 영문으로 실었고, 초대에서 7대에 걸친 이사장에 대한 소개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여성회 창립 4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 40년간의 주요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모아 제공하였습니다.

연례 보고서나 광고를 비롯한 여성회 자료나 홍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유익한 기사, 여성회 관련 귀한 역사 자료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컴퓨터 디자인이나 편집 등으로 더욱 아름다운 여성회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즐겁게 같이 봉사하고 보람을 찾으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유나 회장 제1회 디카시 전시회 출품

2021년 9월 4일 시카고 디카시연구소는 '제1회 디카시 전시회'를 "시를 찍다"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여기에 성유나 회장의 작품 4점이 전시됐다. 디카시는 디카(디지털 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로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얻은 영감을 이미지와 문자로 표현한 시이다.



산불

새생명 탄생을 위해 제 몸을 불사른
이 장엄한 죽음이며!
죽어야 살 수 있는 삶.

*콜로라도 메사버드 국립공원(Mesa Verde National Park)



성유나(Yuna Sung)

부산 출생
이화여자 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졸업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수료
시카고 중앙일보 '시카고 가이드' 주저자
시집 '강건너 사람들' 공저
'미주문협' 수필 등단, '해외문학' 시 등단,
현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 임원

빛

장엄하고 무한한 어둠 속에서
소리는 홍수에 침몰한다
상처는 별이 되어
영롱한 색깔로 살아난다
빛만이 살아 꿈틀댄다

Light

In the deep and endless darkness
Sound sinks down by flooding.
Pain becomes a star
And revives into a brilliant color.
Only light is alive and flickers.

*Antelope Canyon in Arizona state, US



코로나 세상

지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할일 하고 있고
세상은 잠시 멈추었다.



이혼

여기에서 버리지 말라고 했다
자갈길 모랫길 셋길 골목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막다른 길,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애덕 부장 2022 IACA Award 수혜자 선정

시카고한인여성회 문화부 부장이자 시카고한국무용단 단장인 이애덕 부장이 Illinois Arts Council Agency(IACA 일리노이 주정부 예술재단)에서 일리노이 전통분야 예술인 1인에게 그랜트를 지원하는 최종 예술가로 선정되었다(State Funds for the Artist Fellowship, Ethnic & Folk Arts 2022). Artist Fellowship Program은 일리노이의 창의적 환경의 기반인 뛰어난 일리노이 예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일리노이 주를 풍요롭게 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티스트 펠로우십 어워드는 지속적인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랜트를 수여함으로써, 경력을 통해 실질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뛰어난 예술가들에게 주어진다.

육원자 이사장 2022년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



시카고한인여성회 육원자(김원자) 이사장이 5월 17일(화)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열린 '2022 연세인의 밤' 행사에서 '연세를 빛낸 동문상'을 수상했다. 연세대 총동문회(회장 유경선)는 "40만 연세인 동문의 뜻을 모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건학 정신을 몸소 실천한 김원자 동문을 올해의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카고한인회 이사장직도 맡고있는 육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시카고 동문회장, 북남미주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주 감사관 자문위원 등 미 주류사회의 각종 봉사 단체에서 활약했다. 또 한울복지센터 이사, 여성하라인 이사, 전문직여성협회 창설, 경제인협회 회장 등 각종 사회단체 리더로서 미 주 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 주 재무 장관 등으로부터 봉사상을 받은 바 있다.

남서부 북클럽 소식

2022년 3월 30일, 남서부 북클럽은 팬데믹 후 오랜만에 만나 <Beneath a Scarlet Sky> by Mark Sullivan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6월 22일, <Mountains Beyond Mountains> by Tracy Kidder를 읽고 토론했으며,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8월 24일 (수), 토론할 책은 소설 <A Gentleman in Moscow> by Amor Towles입니다.





이애덕 단장/여성회 문화부장

2021.8.4 시카고한국무용단(단장 이애덕) 대공연 관람 후



2021.9.25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 공연 관람 후



2021.9.30 김영석 총영사관저 방문



2021.9.4 디카시 그룹 멤버인 성유나 여성회장의 작품 앞에서



2022.1.13 시카고한인회장 이취임식에서 최은주 신임 회장과



2022.1.13 제35대 시카고한인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육원자 여성회 이사장이 한인회 이사장에 취임



제35대 한인회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여성회 임원, 이사들



2021.12.17 시카고 케이 라디오(대표 조열) 신규 사옥 오픈하우스



2021.12.29 시카고 한인 단체장 신년 상견례



2022.3.1 삼일절 기념식에서 여성회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박주미 국악인과 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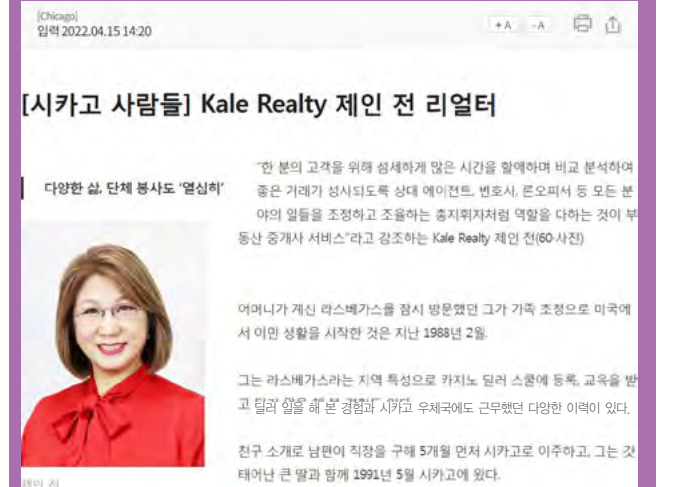


2022.4.9 평통(회장 이성배) 주최 '여성 리더십 세미나' 참석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이숙현 문화부 차장과 제인 전 회원부 부장이 시카고중앙일보의 <시카고 사람들>에 선정되어 소개되었다.



간호 선교사로 미국에 처음 오게 된 이숙현 차장은 현재 가정 방문을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여성회 문화부와 간호사협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한인 연례 건강 검진이나 건강 세미나, 장애우 봉사 등을 통해 재능을 나누고 있다.



가족 초청으로 1988년 라스베가스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제인 전 부장은 1991년 시카고로 이주하여 요식업을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한때 우체국 근무도 했고, 이후 부동산 리얼터 자격증을 취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단기선교 봉사를 꿈꾸며 오래전 미용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현재 여성회와 일리노이한인부동산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사 전문은 시카고중앙일보 웹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Beginning Balance	\$ 20,076.06
-------------------	--------------

INCOME	
이사회비	\$ 7,098.00
후원금 - General In Kind	\$ 10,650.00
보스톤 재단 후원금	\$ 5,000.00
육원자	\$ 1,000.00
이선희	\$ 1,000.00
구광자	\$ 900.00
서명혜	\$ 800.00
이강업(후원이사비)	\$ 500.00
Lucy Paik	\$ 400.00
남서부 라인댄스	\$ 250.00
송정은	\$ 200.00
하재원	\$ 200.00
박순자	\$ 200.00
한수강	\$ 100.00
조앤현	\$ 100.00
합창부 후원금	\$ 11,900.00
장순진	\$ 5,000.00
권오화	\$ 2,000.00
박희숙	\$ 1,400.00
구광자	\$ 1,200.00
박순자	\$ 1,000.00
오숙자	\$ 900.00
김정아	\$ 400.00
회원부	\$ 8,810.00
토요 모듬북 3분기 2021	\$ 1,380.00
토요 모듬북 4분기 2021	\$ 1,080.00
수요 라인댄스 3분기 2021	\$ 1,110.00
수요 라인댄스 4분기 2021	\$ 1,110.00
수요 라인댄스 1분기 2022	\$ 760.00
수요 라인댄스 2분기 2022	\$ 1,110.00
토요 모듬북 1, 2분기 2022	\$ 2,160.00
토요 모듬북 단복비	\$ 100.00
문화부	\$ 756.00
문화부 행사 회비	\$ 156.00
어머니 날 행사 티켓값	\$ 600.00
연례총회	\$ 3,300.00
광고후원	\$ 3,300.00
기타	\$ 24,890.00
한국무용단 Ticket 값(50%-6명)	\$ 180.00
연말파티 티켓 수입	\$ 4,710.00
Morgan Stanley	\$ 20,000.00
Total Income	\$ 67,404.00

Remaining Balance as of 6/25/2022	\$42,138.75
-----------------------------------	-------------

구좌별 현황	
Main Operating Account	\$ 42,138.75
고동혜 기금	\$ 25,007.36
합창단 Operating Account	\$ 16,305.87
합창단 CD	\$ 20,000.00
Morgan Stanley	\$ 62,711.57
Total Balance	\$ 166,163.55

EXPENSE	
이사회	\$ 5,094.39
실행이사회	\$ 256.79
가을 정기이사회	\$ 2,819.66
봄정기 이사회	\$ 2,017.94
연말파티	\$ 4,689.14
연말파티 (Chevy Chase)	\$ 4,156.14
연말파티 준비모임	\$ 56.67
감사패&딱지(Only One Printer)	\$ 300.00
연말파티 선물&마스크커버	\$ 94.79
Decoration	\$ 81.54
연례총회	\$ 1,000.00
Chevy Chase Deposit	\$ 1,000.00
합창부	\$ 14,400.00
합창부 후원금 (1년 후원금)	\$ 2,500.00
장순진	\$ 5,000.00
권오화	\$ 2,000.00
박희숙	\$ 1,400.00
구광자	\$ 1,200.00
박순자	\$ 1,000.00
오숙자	\$ 900.00
김정아	\$ 400.00
회원부	\$ 6,941.30
모듬북, 라면 감사비 3,4 분기 2021	\$ 2,400.00
모듬북, 라면 감사비 1분기 2022	\$ 1,200.00
라면 & 모듬북 대관료(Jul/2021~ May/2022)	\$ 2,200.00
모듬북반 예비 단복비	\$ 750.00
수요라인댄스 개강식보조	\$ 100.00
토요 모듬북 개강식 보조	\$ 100.00
토요 모듬북 특별비	\$ 191.30
문화부	\$ 2,942.48
추억의 영화음악	\$ 304.97
어머니 날 행사	\$ 2,637.51
출판부	\$ 500.00
출판부 Design fee	\$ 500.00
교육부	\$ 1,457.34
재정세미나	\$ 457.34
어린이 날 행사	\$ 1,000.00
홍보비	\$ 1,700.00
근하신년광고(KBC, 뉴스매거진, 한국일보, 중앙일보, 교차로, K-Radio)	\$ 1,300.00
중앙일보 창간축하 광고	\$ 200.00
이화여고 동창회 주소록 광고	\$ 200.00
타단체 협력 및 후원	\$ 2,390.00
한인회	\$ 500.00
평통	\$ 300.00
한국무용단	\$ 300.00
한국 무용단 Ticket값-7명	\$ 390.00
부동산협회	\$ 300.00
용재오날 콘서트	\$ 300.00
Win Tv Grand Opening	\$ 300.00
경조사비용	\$ 509.96
K-Radio open house 꽃값	\$ 150.00
서진화 부회장 개업 꽃값	\$ 70.00
총영사관관저 방문(난화분)	\$ 89.96
디카시 전시회 축하 꽃값	\$ 100.00
이애덕 부장 말 축의금	\$ 100.00
기타	\$ 3,716.70
회계사 서비스 비용	\$ 450.00
웹 Maintenance fee	\$ 450.00
Web hosting fee	\$ 149.82
Zoom (July/21 - May/22)	\$ 164.89
임원회 (오리엔테이션)	\$ 847.70
임원회 (신년하례식)	\$ 462.54
여성회 사무실 사용료(July/2021~ May/2022)	\$ 1,100.00
Annual Fee(총무처)	\$ 14.00
우표	\$ 57.75
명함비용	\$ 20.00
Total Expenses	\$ 45,341.31

수입 예산안

Donation	
Boston Foundation	\$5,000
장순진, 장재철 후원금	\$5,000
심해옥 장학금	\$2,000
일반후원금	\$9,000
SUBTOTAL	\$21,000

Event Income	
이사회비 및 일반회원비	\$8,000
연례총회	\$5,000
연말파티	\$5,000
SUBTOTAL	\$18,000

Program Income	
골든클럽	\$1,000
문화부	\$1,000
회원부	\$8,100
SUBTOTAL	\$10,100

Total Income	\$49,100
---------------------	-----------------

지출 예산안

Operating Expense	
경조사비	\$500
기관단체 기부금	\$3,000
CPA (Tax return preparation fee)	\$450
Web maintenance fee	\$550
문화회관 사용료	\$500
사무용품 및 비품	\$300
정기임원회 및 행사 준비모임	\$2,000
SUBTOTAL	\$7,300

Event Expense	
봄, 가을 정기이사회	\$3,000
연례총회	\$5,000
연말파티	\$5,000
심해옥 장학금	\$2,000
SUBTOTAL	\$15,000

Program Expense	
골든클럽	\$1,000
교육부	\$1,000
문화부	\$2,000
합창부	\$10,000
회원부	\$7,800
출판부	\$2,000
홍보부	\$3,000
SUBTOTAL	\$25,800

Total Expense	\$49,100
----------------------	-----------------

제19대 시카고한인여성회 임원 | Officers

직책/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장	성유나	847-609-2780	ysung429@gmail.com
이사장	육원자	847-494-9942	Kimwonjung@hotmail.com
총무	임미라	224-616-4440	miraim80@gmail.com
이사회 총무	이향지	720-227-2510	lhjyhy@gmail.com
서기	박순열	224-628-5841	park.soonyeoul@gmail.com
이사회 서기	정지연	574-274-4706	jennyjung1031@gmail.com
회계	크리스틴 윤	224-247-9155	Christine.yoon@bankofhope.com
감사	노진수	773-966-8660	Luxe925@yahoo.com
골든클럽	이광자 부장	847-877-6803	kwangclee@yahoo.com
	유근실 차장	630-967-4714	kskim47@gmail.com
교육부	심현정 부장	224-778-0211	7dobest@gmail.com
	고명주 차장	484-995-1555	Spaleakoh@gmail.com
문화부	이애덕 부장	630-803-5044	koreandancein@gmail.com
	이숙현 차장	773-577-1559	sookhyenlee59@yahoo.com
출판부	김호정 차장	415-670-0130	hojeungkim@yahoo.com
합창부	김정아 부장	262-337-3613	joycekim92@gmail.com
	박희숙 차장	847-404-9022	Shwpark@gmail.com
홍보부	고애선 부장	847-452-6254	aesonkoh@gmail.com
회원부	제인 전 부장	847-990-0554	DreamHomeWithJane@gmail.com
	서미선 차장	773-988-8822	UniversalTravel02@yahoo.com

편집 후기

올해 연례보고서의 표지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예쁜 꽃 사진을 넣어 만들어두었는데, 며칠 후 여성회 주최로 5월에 열렸던 어머니날 행사의 그룹 사진을 받았습니다. 고화질로 잘 나온 사진이기도 했지만 더 생각해보려 해도 없이 그 사진으로 바로 교체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리 화려한 꽃만큼 감히 따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진 속 한 분 한 분에게서 온화한 빛과 생기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어머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 임원, 회원과 시카고 교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지난 일 년간의 활동 자료를 보며 편집을 하다 보니, 어느새 피곤함은 사라지고 다음 일 년이 벌써 기대됩니다.

출판부 김호정

Past Presidents & Chairpersons of the Board |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회장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이사장		
1대	홍성옥	(1980-1987) 작고	1대	고동혜	(1987-1990) 작고
2대	심정열	(1987-1989)	2대	고난경	(1990-1993) 작고
3대	이은희	(1989-1991)	3대	이승옥	(1993-1996) 작고
4대	김성자	(1991-1993)	4대	안순영	(1996-1998) 작고
5대	최(이)화섭	(1993-1995) 작고	5대	최선옥	(1998-2000)
6대	주함숙	(1995-1997)	6대	이은희	(2000-2002)
7대	김영	(1997-1999)	7대	김명숙	(2002-2004) 작고
8대	권오화	(1999-2001)	8대	권오화	(2004-2006)
9대	구광자	(2001-2003)	9대	최(이)화섭	(2006-2008) 작고
10대	심해옥	(2003-2005) 작고	10대	구광자	(2008-2010)
11대	강영희	(2005-2007)	11대	김성자	(2010-2012)
12대	심형란	(2007-2009)	12대	심정열	(2012-2014)
13대	전명희	(2009-2011) 작고	13대	김영	(2014-2016)
14대	박규영	(2011-2013)	14대	강영희	(2016-2018)
15대	최선주	(2013-2015)	15대	박규영	(2018-2020)
16대	조은서	(2015-2017)	16대	육원자	(2020-2022)
17대	써니 김	(2017-2019)	17대	심형란	(2022-2024)
18대	박순자	(2019-2021)			
19대	성유나	(2021-2023)			
차기	고애선	(2023-2025)			

이임 육원자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임 심형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전 회장/전 이사장 구광자



심형란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시카고 정신여고 동문회



여성회 사업 및 행사 계획 | Upcoming events

연중 프로그램

- 회원부 수요일 라인댄스: 매주 수요일 오후 2:30 (강사 서명혜)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9820
- 회원부 토요일 모듬북: 매주 토요일 오전 11:30 (강사 이애덕)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9820
- 여성회 합창단: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지휘 표경진)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행사장1

2022년

- 7월 제1차 정기 임원회
- 8월 여성 리더십 계발 세미나
제2차 정기 임원회
- 9월 여성 리더십 계발 세미나
제3차 정기 임원회
- 10월 가을 정기 이사회
- 11월 여성 리더십 계발 세미나
제4차 정기 임원회
- 12월 연말파티
제5차 정기 임원회

2023년

- 1월 신년 하례식
- 2월 여성 리더십 계발 세미나
제6차 정기 임원회
- 3월 여성 리더십 계발 세미나
제7차 정기 임원회
- 4월 봄 정기 이사회
제8차 정기 임원회
- 5월 어린이날 행사 (교육부)
어머니날 행사 (문화부)
제9차 정기 임원회
- 6월 제43회 연례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847) 920-7447 | kawaoc@gmail.com | www.kawac.org | 9930 Capitol Dr. Suite 101, Wheeling, IL 60090



Boba & Froyo & Fresh Fruit Smoothies



Sweet Cafe

1568 E. Lake Cook Rd.
Wheeling, IL 60090
847.229.3882



Tea Nation

245 Golf Mill Ctr
Niles, IL 60714
847.376.8366